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의 방향과 실제

이상화 목사(서현교회 담임목사,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팬데믹 이후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된 사회적·교회적 현실 속에서 소그룹 목회가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 대안임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소그룹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친밀한 교제와 말씀, 기도, 상호섬김을 통해 성도 개개인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필수적인 공동체다. 이에 본 논문은 성경적 근거와 사회적 현실의 극복, 그리고 교회성장의 실질적 근거로서 소그룹목회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을 논증하는데 전반부를 할애했다.

그리고 논문 후반부에서는 소그룹목회의 실제적 방향성으로 건전한 교회론에 기초한 사역 설계, 소그룹의 유기성과 자발성 확보, 소외 없는 배려문화 형성, 교회 맞춤형 소그룹 모델 개발, 지속적인 리더 훈련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교제 구성 및 재편성 전략 등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본 논문은 30년 이상의 소그룹목회 임상경험과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부흥을 위한 소그룹목회의 전략과 실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주제어 : 코로나팬데믹, 소그룹, 소그룹목회, 건강한 교회성장

Abstract

This paper emphasizes that small group ministry is a key alternative for healthy church growth in the social and ecclesial context where isolation and loneliness have intensified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Small groups are not merely organizational units, but essential communities that function as “mini-churches within the church,” fostering spiritual maturity and church revitalization through intimate fellowship, the Word, prayer, and mutual service.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demonstrating that small group ministry—rooted in biblical foundations, addressing contemporary societal challenges, and providing practical grounds for church growth—is a vital factor in nurturing a healthy church.

The latter part focuses on practical direc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including ministry design grounded in sound ecclesiology, securing the organic and voluntary nature of small groups, cultivating a culture of inclusion and care, developing context-specific small group models for each church, establishing ongoing leadership training system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present the strategie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mall group ministry for healthy and sustainable church growth, based on over 3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and research data in small group pastoral ministry.

Keywords: COVID-19 pandemic, Small group, Small group ministry, Healthy church growth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우리 사회와 교회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세계의 삶의 체계가 뒤죽박죽 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의 돌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 (Corona)로 불렸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일컬어졌다.¹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19(COVID-19)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식 선언한 이후 2023년 5월 5일 세계적 대응 단계가 비상사태에서 일상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3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못치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는 희한한 구호가 생겼다. ‘비대면(Untact)’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긴 시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는 더욱 파편화 되고 개인을 확장시킨 수퍼개인의 경향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도, 주거형태도, 라이프스타일도, 경제와 산업 구조도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인간관계는 더욱 제한되고 외로움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팬데믹 이후 2023년 말 현재 한국 사회의 외로움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5%가 외로움을 ‘거의 항상’ 느꼈고, ‘자주’ 느꼈다는 응답도 14%로 대한민국 국민들 5명 중 1명(19%)은 외로움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²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관계 지향적이고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울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외로움은 병이 된다.’는 말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이 되었다. 인간의 행복 조건을 긴 시간 연구한 하버드대학교의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는 외로움은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면역체계가 억제되며 뇌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 효율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진술한다. 외로운 사람은 훨씬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최근 연구에서 노인의 고독은 비만 보다 건강에 두 배나 해롭고, 만성적인 고독은 사망확률을 26%나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밝힌다.³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외롭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조사해 본 결과 개신교인도 절반 가까이(46%)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결국 긴 시간 단결과 소외의 흐름을 보인 사회적 상황 속에 성도들 역시 상황적으로 그 영향 아래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상황이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예배당은 영상을 송출하는 스튜디오화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성도 상호간의 대면접촉과 전인격적 교감을 통한 긴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실제로 교회가 코로나팬데믹 이후 어느 정도 성장과 성숙의 동력을 상실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가 있다. 코로나팬데믹의 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2022년에 2023년 새해에는 팬데믹이 끝날 것을 내다보면서

¹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 『코로나 빅뱅-뒤바뀐 미래』(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20), 5.

² 최선아,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리서치, 접속일 2025년 5월 20일, https://hrcopinon.co.kr/archives/29126?utm_source=chatgpt.com

³ 로버트 월딩거·마크 솔츠,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박선령 역(서울: 비즈니스북스, 2023), 162-163.

⁴ 이상화 외 9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서울: 규장, 2023), 67.

성도들에게 “만일 교회에서 현장예배 출석 독려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는 물음을 던진 결과다. 현장예배에 가겠다는 응답을 한 한국 교회 성도들은 57%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는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다른 교회 온라인예배를 드리겠다’ 는 응답률을 보여서 현장예배의 회복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큰 과제로 떠올랐다.⁵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일반인이나 성도들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단절과 외로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교회는 엔데믹이 선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성장 복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개인은 물론이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많은 교회 사역 전문가들과 교회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그룹사역과 소그룹목회의 중요성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팬데믹 이후 소그룹사역과 목회가 대안인가?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코로나팬데믹 이후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대두된 소그룹이란 과연 무엇이고(정의), 왜 소그룹사역과 소그룹목회가 중요한지(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의 실제적인 방향(전략적 실제 방향서)은 무엇인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소그룹사역과 목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과 소그룹리더들의 소그룹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그렇다면 소그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그룹목회의 역사를 열었다고 보는 경건주의자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는 영적 공동체 내의 소그룹을 ‘교회 내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 라고 부르고, “영적 변화를 이루고 봉사와 헌신을 통한 경건의 외적 실천을 도모하는 소수(3명-10명)의 공동체” 라고 정의한다.⁶ 소그룹목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지평을 체계있게 열어준 <소그룹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를 쓴 게레쓰 W.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을 “소그룹은 몇몇 사람(세 명에서 20명 정도)이 상호 발전과 타인의 보편적인 유익을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존재하고, 삶을 나누며, 행동하는 모임이다.” 라고 정의한다.⁷ 그러면서 책 전반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이 빚어지고, 공동의 경험을 하고, 기도와 삶의 계획이 일어나며, 또한 감성과 지성이 모두 자극을 받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정의들과 함께 또 한 가지 건강한 소그룹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정의를 제공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소그룹임상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이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

⁵ 지용근 외 9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19.

⁶ 권문상, 『소그룹의 원리와 실제』 (서울: CLC, 2024), 21.

⁷ Gareth W. Icenogle, 『소그룹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서울: SFC출판부, 2007), 21.

하고 성장하려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⁸ 이 정의는 모두 일곱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한 마디 한 마디가 소그룹을 명료하게 이해시켜 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의로 결정하여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의사소통의 90%는 언어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더욱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킨다. 모임의 인원이 12명을 넘게 되면 언어 외적(言外的)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모임은 역동성을 잃게 된다. 소그룹 참가자가 7명이 넘으면 성경공부를 진행할 때에는 네 명씩 소그룹으로 모임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제 시간 안에 모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다. 나중에 그룹이 견고하게 된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 모임 수 있지만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정확하게 명시된 목적이 없는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모임은 흔들리게 된다. 소그룹의 목적 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둘째,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여섯째, 소그룹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 모임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다.⁹

결국 소그룹은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긴밀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곳”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그 한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황(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이 발생하든지 도움을 구하고 또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안 공동

⁸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소그룹하우스, 2009), 23.

⁹ Ibid., 24-25.

체가 있다면 그 곳은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소그룹 현장이다.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고 묘사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조가 소그룹이다.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팬데믹 이후 말씀과 교제와 집중력 있는 기도, 그리고 상호섬김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전인적인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다.

III. 코로나팬데믹 이후 왜 소그룹목회가 중요한가?

코로나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들 다수가 모이는 현장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현장을 훨씬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소그룹 현장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정신 ‘비타민’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결국 소그룹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 전반적으로든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에 직면할 때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삶 속에서 생기를 얻고,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건강한 소그룹목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1. 성경적 근거

냉정하게 말하면 소그룹이라는 용어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이곳 저곳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먼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디자인하셨다고 해석한다. 말 그대로 성경은 태초부터 소그룹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처음 시작한 소그룹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¹¹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한다.¹² 이런 의미에서 원만한 소통과 공감의 일어나는 소그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구조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언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바로 사도행전 2:42-47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의 증언을 살펴 보면 초대 예루살렘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말씀교육을 받고 개인의 회복과 치유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부흥을 함께 일구어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식탁교제까지 하는 친밀한 교제를 했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44절-45절을 보면 부요한 성도들은 공동체 내의 가난한 성도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필요한 영역을 나누며 섬겼고, 가난한 성도들은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는 기쁨을 누렸다. 한 마디로 유무상통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의 형태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위해 애를 썼는데 모임의 장소가 두 곳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성도들은 당시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

¹⁰ 이상화 외 9인, Ibid., 78.

¹¹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25.

¹² 권문상,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177.

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했고, 동시에 유복한 성도가 개방한 ‘집’에서도 함께 모였다.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는 대그룹의 형태를 띠었다. 동시에 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는 깊이 있는 말씀연구와 떡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밀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섬김과 나눔은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보다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초대교회가 성전으로 대표되는 대그룹과 집으로 대표되는 소그룹 모임을 균형 있게 강조한 결과는 47절에서 이렇게 증언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¹³

제자훈련 소그룹유형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한 성도 개인의 성숙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낸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가진 체질인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비대화된 조직체로 석화(石化)되어 가는 교회의 현실을 걱정한다면 성경에 가득 들어 있는 소그룹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¹⁴

2. 사회적 현실문제 극복의 근거

지금 우리 사회는 영락없이 개인이 고독함을 씹는 고립 사회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구지표는 공동체성을 추구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다. 2024년 12월 9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2207만 3천 가구)의 35.5%인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¹⁵ 적어도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제한된 인간 관계는 친밀함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외로움이 압도하는 사회가 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관계는 더욱 약해졌다. 실제로 <국민일보>가 2023년 2월초부터 기획 연재한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기사를 보면 “코로나이후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꼴로 의료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탄다.”는 내용이 있다.¹⁶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닌 사회적 관계유지 트렌드(Sociality Trend)를 지닌 존재다. 대면공동체이든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공동체이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 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속성이다.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 혼자 생활할수록 누군가와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고 코이노니아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와 같은 사회학자는 “인간의 존재를 타인과의 관계,

¹³ 채이석 · 이상화, Ibid., 29-30.

¹⁴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241.

¹⁵ 뉴시스, “나혼자 사는 60대 이상, 20·30대 앞질렀다…56% 年 3000만원 못 벌어”, 공감언론 뉴시스, 접속일 2025년 5월 22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200?utm_source=chatgpt.com

¹⁶ 서윤경 최기영 유경진, “4명 중 1명 ‘중증의 고독’ … 종교인이 외로움 덜 탔다”, 국민일보, 접속일 2025년 5월 22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154&code=23111111&cp=nv>

곧 교섭으로 보며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사회존재로 발전해 간다” 고 한다.¹⁷

그런데 중요하게 주목할만한 사실이 있다. 앞서 언급한 <국민일보>의 같은 기사를 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고, 특히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타 종교보다 기독교에 더 관심을 갖는다.” 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기사 내용에서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효민 교수는 외로움 척도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지수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의 평균 외로움 지수(41.0점)와 무종교인(43.2) 사이의 2점 차는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 는 것과 “최저점인 20점부터 최고점인 80점 사이에서 2점은 상당한 차이” 라고 설명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50점 이상의 종교도 및 고단계 외로움을 겪는 이들은 관심 있는 종교로 기독교(34.0%)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인터뷰 했다. 결국 코로나팬데믹 이후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의미다. 스위스 태생의 영국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스스로 무신론자이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교의 고유한 특징을 관찰하였는데, 자신의 저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는 종교는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편견들을 없애려는 종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¹⁸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환경의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학자들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다. 사회학자들은 자신의 가슴을 열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밝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소그룹사역을 진행해 나가 보면 6명이 아니라 1명만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 내에 있어도 성도들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본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6명, 아니 1명을 효과적이고 순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대그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깊이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구조다. 그래서 로버트 니스벳(Robert Nisbet)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에 소속되는 것이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강조한다.¹⁹ 이와 관련하여 성경적인 근거로 바울은 친밀한 교제를 통한 안정감이 있는 구조로서의 교회를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가족’ 이라는 은유로 표현을 한다. 결국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어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함께 성숙과 성장을 해 가는 한 가족, 한 몸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결된 한 건물의 이미지를 갖는다.²⁰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위험 사회가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추구할 때 진정한 교회 본연의 모습과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인 리서치 결과로 <한국교회트렌드2024>를 보면 코로나팬데믹 이후 삶의 안전망으로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과 수용감, 그리고 안정감과 자존감 및 연대감의 경험을 갖기 원하는 성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전히 해제된 이후 앞으로 소그룹 모임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질문에 대해 ‘현재보다 줄 것 같다’ 는 응답은

¹⁷ 정재영, Ibid., 39.

¹⁸ 알랭 드 보통,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박중서 역(서울: 청미래, 2011), 23.

¹⁹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39.

²⁰ 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공동체 사상』 (서울: Ivp, 2007), 99.

10.6%에 그친 반면에 ‘현재 보다 늘 것 같다’는 응답은 46.7%나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소그룹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단수응답)’하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의 8명은 ‘가능할 것이다’ (80.8%)는 응답률을 보였다.²¹ 이것은 코로나팬데믹을 벗어난 시점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그룹의 회복과 함께 소그룹사역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고립과 단절 속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소그룹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 건강한 교회성장의 근거

과연 소그룹은 교회성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들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전체 생명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의 건강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1994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 교회 소그룹사역을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리더들을 트레이닝 하면서 소그룹목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도와온 한국교회소그룹목회연구원의 구호는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였다. 실제로 신약시대 2000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역동적인 소그룹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과 성숙의 경험을 가진 목회자들과 소그룹리더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모임, 건강한 모임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늘 느낀다.”는 간증이다. 제자훈련 소그룹유형을 통해서 사랑의교회를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세운 옥한흠 목사는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소그룹)들로 구성된 독특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은 유형을 따라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²

건강한 소그룹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지향하는 교회는 무엇 보다 교회 내부 구성원들로만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헌신 정도에 따라 분석하면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한다. 평균적으로 전 교인의 10% 정도를 ‘핵심 성도’로 분류하고, 약 30% 정도는 ‘교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대체로 예배참석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그저 구경하는 ‘군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²³ 매 주일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세 종류의 교인들이 보통 목양의 대상으로 이해하지만 소그룹의 확장성을 통해 건강한 교회성장을 꿈꾸는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들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는 네 번째 대상인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늘 염두에 둔다. 이들은 바로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전혀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코로나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에서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과 필요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 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관심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필요중심적 소그룹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과 주거환경과 생활의 필요와 관심사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의 눈높이에 맞는 사역이 준비된 열린 소그룹을 지향한다면 그 소그룹이 접착점이 되고, 교회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관문이 되어

²¹ 이상화 외 9인, Ibid., 202-203.

²² 옥한흠, Ibid., 239.

²³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목회 컨설팅』(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26.

교회는 새롭고 건강한 교회성장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리서치 결과가 두 가지 있다. 바로 코로나팬데믹의 엄혹한 상황을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인 교회는 계속해서 소그룹사역에 지속적으로 무게중심을 둔 교회였다는 결과다. 일단 교회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리서치이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라면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다.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인 2023년 4월말-5월 초에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소그룹 모임 운영 현황과 교인 수 증가의 상관관계를 물어보았을 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교회는 성도 수가 계속 성장한다는 응답률(84%)을 보였다. 그리고 소그룹이 모이는 주기가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계속 성장한다' (64%)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²⁴ 결국 '정기적'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매주' 소그룹목회사역을 강조하는 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가 취향(필요중심적 및 관심사)소그룹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나 되었다는 것도 유의미하다. 독서나 운동, 그리고 등산 등과 같은 성도들의 취향을 고려한 필요중심적 소그룹은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모임이므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비율이 58%나 되었다.²⁵ 아마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좋은 모임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초대하고 싶은 열망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교회 내부의 기존 구성원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교회 안에 미처 받을 들여 놓지 못한 잠재적 성도인 이웃 주민이 되었든지 소그룹은 교회 내부의 결속을 넘어 건강한 교회성장을 지속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왜 소그룹목회가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해 세 가지 근거로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요한 소그룹목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나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하여 1994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만 30년 이상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을 통해 임상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V.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의 실제와 방향성²⁶

1. 건전한 교회론을 점검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임상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 우선 건강한 교회론을 전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온 성도들이 상호연결된 지체라는 조직체와 유기체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론이 없이 오직 일사분란한 지휘명령 계통의 교회 조직 구성을 위한 소그룹이해와 편파적인 교회론을 가진다면 소그룹이 오히려 교회 전체를 경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목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뽑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성숙을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에 기초한 소그룹목회 방향설정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은 성장 위주가 아닌 성숙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를 향한 이런 인식의 변화는

²⁴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Vol.1.5.』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101

²⁵ Ibid., 110.

²⁶ 이 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필자가 섬긴 서현교회의 소그룹리더들에게 매 주 수요일 오전 소그룹리더들에게 강의했던 자료를 모아 출간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이상화,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24)

바로 건전한 교회론에 기초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소그룹사역의 목표 역시 하나의 목표(예: 교회성장)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통전적인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건전한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근거하여 소그룹사역이 교회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그룹사역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교회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부름(소명)과 세움(양육), 그리고 보냄(파송)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그 속에 있는 소그룹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상기한 것을 바탕으로 소그룹은 세 가지(교제, 양육, 섬김(사역) 공동체로서의)의 균형이 필요하다.

1.2. 전체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성을 강조하되, 소그룹의 자발성(독립성)이 무시되지 않는 구조 수립

소그룹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내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전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는 긴장이 항상 소그룹사역에는 내재한다.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분리는 아주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소그룹 리더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위임되지 않고, 소그룹이 단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만을 이행하는 자발성(독립성)이 상실된 소그룹에는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소그룹 리더들의 창발성 자체가 상실된 소그룹이라면 더더욱 소그룹을 통한 지속적인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적 공동체 전체와 소그룹 사이에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은 전체 공동체의 비전이 소그룹의 비전이 되고, 소그룹사역이 전체 공동체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호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소그룹 리더에게 교회의 전통과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면 소그룹 리더에게 권한이 위임될 필요가 있다. 즉 소그룹이 피라미드 구조의 하위 개념적 공동체가 아니라 교제와 양육, 사역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 DNA(생명적 인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전체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분파로 가지 않는 것이 담보된다면 공동체의 아킬레스건인 재정적 독립까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받은 소그룹은 그 재정을 사역적 측면(Mission Field)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교회(대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를 잃지 않으므로 교회 내의 소그룹들이 그 권위에 대한 순복함이 있고, 동시에 소그룹이 지향하는 바가 교회의 전체 비전과 일치하면서 권한의 위임을 통해 뚜렷한 사역적 특성을 가진 미션 그룹(Mission Group)으로 까지 발전한다면 분파주의가 방지된 상호 유기성이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소그룹 내에 소외됨이 없는 내적 배려 강조

소그룹 임상을 할 때 구성원들에게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인가?”를 반복적으로 질문해 보면 “배려받는 소그룹”이라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배려 받는 소그룹이란 그 누구도 소그룹 내에서 소외되지 않음을 뜻한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어떠하든지 소그룹 내에서 소외됨이 없을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성숙이 가능하다. 특히 소그룹의 특성상 신앙의 이력이 제 각각인 것을 감안할 때 소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복적인 임상 결과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이 배려받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서로의 ‘이름’을 아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²⁷

둘째,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공부 교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강요하지 않고 결론이 열려있는 질문, 재미를 통한 삶의 흥분과 기대가 있는 소그룹,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동을 경험하는 소그룹, 계속 참석했을 때 팀원들과 함께 실현가능한 목적이 분명한 소그룹, 함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소그룹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 적어도 목회자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고 소그룹목회를 하기 위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진행된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소그룹목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 목회현장에 적합한 소그룹모델(혹은 유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²⁸

소그룹을 통한 한국 교회 소그룹목회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면 구역예배가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소그룹이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그룹사역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소그룹으로 이해되었고, 교회에서는 선교단체에서 발행한 성경공부 교재를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몇 권씩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때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서울의 일부 교회의 대학청년부에서 선교단체의 역동성을 교회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이런 노력을 통하여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들 교회 청년대학부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소그룹을 통한 청년대학부의 성장을 장년사역에 접목시켜 교회 전체차원의 소그룹 운동으로 활성화시킨 것은 사실 90년대 초반을 지난 시점이다.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목회자들 스스로 설교만으로 교인들의 내면적인 영성과 그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균형잡힌 영적 시각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일, 그리고 삶 속에서 부대끼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대안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양육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출판사들도 이에 부응하여 80년대에는 소그룹 성경공부교재 출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초반이 지난 시점부터 소그룹 철학과 인도법, 소그룹을 통한 교회 내의 양육체계 등과 관련된 도서들을 출판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를 놓고 볼 때 소그룹사역이 교회 내에서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필수적인 양육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90년대, 그것도 초반이 아니라 중반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소그룹사역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소그룹 체계를 가지고 성장을 경험한 개 교회의 소그룹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전면에 새로운 대안적 사역으로 부상하기도 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붓물 터지듯이 수많은 소그룹 체계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셀목회, 알파코스, 윌로우 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새들백교회 소그룹 프로그램, 세렌디피티 소그룹 등 과 같은 것들이 세미나의 형식으로 목회자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셀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랄프 네이버 목사를 주 강사로하여 2001년에 개최된 제1회 셀교회 컨벤션이 열렸을 때 이 세미나에 무려 1,300 명이나 되는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참가한 것은 가히 사건이라고 일컬어도 될 만큼 한국교회 내부에 소

²⁷ 여기서 이름은 한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History)와 현재의 삶과 기도제목, 미래의 비전(Vision)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소그룹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²⁸ 이 주제와 관련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목회 컨설팅』의 제2부와,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제1장 ‘소그룹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부분과, 이상화, “한국 소그룹사역을 고찰한다”, 목회와신학 통권163호(2002년 1월호)를 참조하라.

그룹 양육체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진 양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실례였다. 그런데 소그룹과 관련한 책들이 쏟아지고 세미나가 개최되면 개최될수록 소그룹사역과 관련한 어려움이 한국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소그룹 모델이 봉어빵처럼 다른 교회에 그대로 이식되기 시작한 경향이였다. 즉 인적구성과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역사와 신학적 입장,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스타일이 각각 다른 개별 교회들이 유행처럼 성공한 소그룹모델과 시스템을 적용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속출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돈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소그룹’ (Smallgroup)이라는 단어와 전통적으로 교회가 작은 수로 모여왔던 ‘구역’이라는 단어의 혼돈이였다. 또 셀(Cell)사역이 보급되면서 소그룹과 셀, 셀과 구역의 혼돈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용어의 차이가 아무리 두드러진다 해도 소그룹 전문사역자들이 항상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는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astenes)의 소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에 정초한다면 어떤 용어로 언급되는 양육체계라 할지라도 ‘소그룹’이라는 우산 아래 강조점을 달리 하는 소그룹 내의 다양한 모델(혹은 유형)이라고 파악해야 옳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채용한 소그룹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 소그룹 모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교회는 여러 유형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하는 법은 없다는 점이다.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속한 교회의 특성을 잘 살펴서 장점과 취약한 점을 발견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소그룹모델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우리교회에 가장 적합한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소그룹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몇 가지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소그룹모델(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제자훈련모델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에 대한 관심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이 큰 결실을 맺고 사랑의 교회가 대교회로 성장함에 따라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제자훈련은 제자로 훈련받고자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4-7명의 그룹으로 나눈 뒤 소그룹 성경공부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체계이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소그룹을 인도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구역예배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목회자와 동시에 평신도의 지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서방교회에서는 ‘리로이 아임스’로 대표되는 네비게이트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제창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교회안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대교회로 성장한 경우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가 소그룹을 소개받게 된 첫 번째 통로는 선교단체의 성경공부프로그램이었고 두 번째로 제대로 소개받은 통로는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제자훈련이었다. 제자훈련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제관계’와 ‘책임’으로 그 사역을 확장하신 모습이다. 이 모델에서 지도자는 하나의 멘토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재 탄생시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파송하셨다. 제자훈련모델은 아주 헌신된 자들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를 만들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메타모델(셀모델)

셀(Cell)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를 한국에 초대하여 셀교회컨벤션을 열자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참석하여 “셀”의 열풍을 일으켰다. “셀”이라는 말은 결국 소그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셀”이라는 말에는 랄프 네이버의 교회관이 포함된 독특한 소그룹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그룹이라 하지 않고 “셀”이란 단어를 고유어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랄프 네이버를 통해 셀교회가 널리 소개되었지만 셀교회유형의 소그룹을 소그룹이론에서는 이것을 메타유형의 소그룹이라 부른다. 칼 조지(Carl George)가 이 모델을 개척하였으며, “메타(meta)”라는 말은 변화 또는 변형을 의미한다. 메타모델은 제3세계에서 발견된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미국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칼 조지가 시도한 것이다. 제3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건물이나 전문적인 교역자들이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칼 조지는 교회의 재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소그룹 교회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메타모델을 활용하는 몇몇 교회에서는 실제로 교회의 참가자 수를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소그룹에 참석하는 구성원 수로 계산한다. 이 모델은 피라미드와 같이 담임목사가 네트워크된 교구목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구조이다. 목회자들은 교구장들을 섬기고, 교구장들은 소그룹 인도자들을 섬기고, 소그룹 인도자들은 말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며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메타유형 소그룹의 주요 기능은 번식이다. 실제로 메타모델에서 소그룹의 전체 목적은 교회 성장이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 그룹으로 시작하여, 그 그룹이 보조 인도자를 통해 번식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 그룹의 구성원이 10명이 되는데로, 보조인도자는 새로운 가정 그룹의 인도자가 되며,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과 함께 또 하나의 셀을 형성한다. 이런 방법으로 소그룹은 번식을 계속한다. 셀 조직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유기적인 세포조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즉 ‘셀(세포)’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대로 셀 자체가 담지하는 생명력을 인정하면서 셀의 자가번식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G12나 D12모델은 모두 이 셀모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셀유형들로 이해할 수 있다.

제자훈련이 소그룹을 통해 신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는 “훈련”에 강조가 들어가 있다면 셀교회는 교회가 작은 구성단위의 집합체의 번식이라는 면에 강조점이 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작은 단위의 “셀”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셀”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세포 분열시키는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랄프 네이버는 기존의 교회체계를 프로그램화된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과 주일학교와 남전도회와 같은 부서,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한마디로 “전통주의 교회”, 프로그램화된 교회 “라고 표현했다. “셀”의 특징은 이러한 기존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셀교회는 강한 유기체적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교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회 행정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약점은 그룹을 세우는데 있어서 번식 과정의 영향이다. 성장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됨으로써, 그룹을 세워 가는 과정이 새로운 셀을 만들기 위해 겪는 세포분열로 인하여 단절을 경험하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다.

2.3. 통합(구역)모델

제자훈련이나 셀교회의 공통분모는 그 활동이 모두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회는 초대

교회이래로 언제나 소그룹활동이 있었다. 따라서 셀교회의 개념 이외의 몇 가지의 소그룹 유형을 더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 한가지가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Dr. Cho 모델의 소그룹이다. 구역조직으로 탁월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의 이니셜을 이용하여 조모델이라고 명칭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모델을 통합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소그룹모델을 두 가지(제자훈련모델, Cho 모델)나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초창기에 소그룹을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해 모든 그룹을 담임목회자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그러나 곧 지쳐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소그룹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12-14시간을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달라는 목회자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을 소그룹의 인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성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사역을 나누어 드려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권위의 모자를 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파란 모자를 쓰고 나의 소그룹으로 가서, 나의 목양지에서 나의 소그룹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매 주일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각 구역으로 흩어져서 구역모임에서 해야 할 말을 입 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구역모임에 가서 구역모임에서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사역을 확장시키고, 교회가 커져도 목회자가 무리 없이 교회를 권위 있게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요인이 되게 했다. 결국 통합(구역)모델이라는 것은 매 주일 소그룹 리더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자신이 맡은 구역소그룹에서 재생하므로 가정과 강단을 직접 연결해 주는 형태를 띤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구역)소그룹은 그 반대급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의 카리스마를 가진 능력 있는 메신저가 운용한다면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소그룹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 언약모델

제자훈련과 셀교회, 그리고 통합유형의 소그룹에 익숙해 있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언약모델을 들 수 있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가 이 모델을 대중화시켰지만, 미국 세렌디피티 하우스(Serendipity House)의 라이먼 콜먼(Lyman Coleman)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그의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중에 언약모델을 시작했고 “소그룹에 의한 성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과정을 개발했다. 로베르타는 1972년도에 시애틀의 대학장로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이 모델을 채택했는데 그녀는 이 모델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한 세대의 목회자들 전체를 훈련시키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성경적으로 이 모델은 구약 성경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모임의 기본적인 규칙에 동의하는 언약을 맺는 그룹이다.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그룹은 그들의 목적과, 특별한 목표와, 공부 주제와 기초적인 규칙과,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 등을 결정한다. 언약서의 활용 외에도 언약모델에는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언약그룹의 강조점은 학구적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언약그룹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적어도 진행되는 소그룹의 교과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참여하기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인 만큼 가능하다는 의미다. 언약그룹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장기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언약그룹은 강한 헌신과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언약모델은 사람들을 미래의 인도자로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새 신자를 위해 좋은 모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소그룹이 언약그룹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스타일의 제자훈련의 개념이 없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언약모델의 소그룹을 선택하고 있다.

언약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룹에 장기적인 헌신을 요구함으로써 소속감과 친밀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약그룹은 참가자들에게 확장된 가족이 되어 준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교회에 확실한 유익을 주는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언약모델의 약점은 그 장점과 연결되어 있다. 참가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됨으로써 언약그룹은 핵심멤버들이나 교인들로 대상이 제한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형의 그룹에 흥미를 가질 수 없다.

2.5. 가정교회모델

‘가정교회’는 말 그자체가 사도행전 2장 42절-47절 등의 신약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언어적으로 원형교회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끌고있는 소그룹모델이다. 유기적 가족에 정신이 살아있는 수평적 상호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소그룹의본질적인 정신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친밀함과 상호신뢰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소그룹 모델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말이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모델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멤버들을 교회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안착시킬 수 있는 정착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유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분가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가정교회는 전도와 교회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모델을 선택하면서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은 가정교회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편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회 전체의 유기성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도 하다.

2.6. 협력과 회복모델 및 필요중심적 모델

이 모델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소극적인 교인들과 아웃사이더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운영되는 소그룹 유형이다. 한국교회는 거의 새신자훈련을 위해 이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성경본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 교회의 율례를 잘 모르는 초보신자들, 새로운 공동체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새신자훈련은 아주 중요한 소그룹사역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협력해) 주고,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라면 새 살이 돌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며, 관심과 취향을 만족시켜 주는 목적으로 이 모델은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내에서 협력과 회복 소그룹의 형태는 새신자훈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조금만 생각을 넓혀 보면 협력과 회복 소그룹모델은 교회의 전체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일례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한 번 생각해 보자. 한국 사회에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적인 갈급함이란 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학부모들의 필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영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이 순간순간 회복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필요중심적 소그룹으로 간다면 그 소그룹은 역동적인 소그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협력과 회복 소그룹은 달리 표현한다면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소그룹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중심적 소그룹모델 혹은 관심사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모델들이 각각의 강조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어느 한 가지의 소

그룹모델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소그룹형태만이 가능하다는 도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소그룹 모델들이 유기적으로 교회에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우리 교회의 신학적 입장과 전통과 인적 구성과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매우 유연하고 독특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창의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소그룹목회를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방향으로

3.1. 먼저 소그룹목회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부터 내려 놓으라.

소그룹목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목회컨설팅을 진행해 보면 소그룹사역 전체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소그룹목회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 싸인 것을 자주 본다.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신학수업 과정 속에 소그룹사역과 소그룹목회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 소그룹리더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우리 소그룹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숙하고 서로를 섬기는데도 익숙한 것 같은데 나눔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인가 어색함이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나눔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웬지 친밀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 내에서 반복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소그룹 환경 속에서 SNS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너무 빠른 이야기만 반복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소그룹은 실질적으로 지속성을 띠고 진행되기도 어렵고, 소그룹이 누릴 수 있는 유익도 누릴 수 없다. 또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도를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목회자들, 그리고 자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이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소그룹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트렌드 리서치’에 보고된 소그룹 관련 결과 속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들의 깜짝 놀랄만한 응답률을 보았다. ‘귀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그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소그룹 참석자들은 이런 응답을 했다. 먼저 ‘모이면 즐겁다’는 응답은 93.1%의 응답률을 보였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응답도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응답도 90.1%의 응답률을 보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는 89.5%, 그리고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도 88.8%나 되는 응답률을 보였다.²⁹ 이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소그룹 만족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목회자와 리더만 소그룹의 성공여부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소그룹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소그룹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과감하게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한 번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소그룹사역이기 때문에 소그룹사역이 주는 황홀한 기쁨과 아름다운 결과를 곧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미 소그룹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 절대로 중간에 마음을 꺾고 포기하지 말고 잘 준비된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진행해 보라.

3.2. 성경대로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강조하자.

²⁹ 이상화 외 9인, Ibid., 205.

사도행전 2:42-47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일구어냈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언을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의 형태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위해 애를 썼는데 모임의 장소가 두 곳이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했고, 동시에 유복한 성도가 개방한 ‘집’에서도 함께 모였다.(46절 참조.) 공동체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는 대그룹의 형태를 띠었다. 동시에 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는 깊이 있는 말씀연구와 떡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밀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섬김과 나눔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성전보다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초대교회가 성전으로 대표되는 대그룹과 집으로 대표되는 소그룹 모임을 균형 있게 강조한 결과는 이렇게 증언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신약시대 2000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경험을 가진 목회자들과 소그룹리더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모임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이다. 무엇 보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의 효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트렌드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전히 해제된 이후 앞으로 소그룹 모임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하는 질문을 던졌다. ‘현재보다 줄 것 같다’는 응답은 10.6%에 그친 반면에 ‘현재 보다 늘 것 같다’는 응답은 46.7%나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소그룹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단수응답)’ 하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의 8명은 ‘가능할 것이다’ (80.8%)는 응답률을 보였다. 성도들의 대그룹의 회복과 함께 소그룹 사역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³⁰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공동체는 소그룹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전체 대그룹과의 유기성을 강조한 아주 유효한 모임 형태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고백을 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 공동체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코로나팬데믹 이후 외로움과 고립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더욱 사회적 관계유지 트렌드(Sociality Trend)를 보이는 상황속에서 교회는 대그룹과 함께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3. 지속적인 리더훈련 시스템을 세우고 진행하라.

제자훈련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도력 개발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꿈꾼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밝힌다. “제자훈련의 성패는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달려있다(중략). 지도자의 인격, 지도자의 영성, 지도자의 기술이 제자훈련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³¹ 리더의 성장과 성숙이 소그룹의 수준을 좌우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다.

³⁰ 이상화 외 9인, Ibid., 203.

³¹ 옥한흠,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5.

실제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깊은 기도와 구체적인 상호섬김이 일어나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사역의 성패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다. 특별히 소그룹리더는 소그룹사역 현장에서 소그룹리더들에게 중요한 모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내면적(internal)으로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외면적(external)으로도 균형있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 소그룹사역의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그룹목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성취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소그룹과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때 곧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교회 내 대부분의 소그룹리더들이 소그룹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소그룹리더들이 성경본문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와, 함께하는 소그룹구성원들을 대하는 인격과, 소그룹을 흥미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소그룹리더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가져야만 한다. 목회자들은 소그룹리더들에게 목회자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생명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 위치와 역할과 사명, 그리고 실제적인 소그룹 인도 기술(Skill)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르치는 정기적인 시간을 균형잡힌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름 긴 시간 소그룹사역에 나름 집중해 오면서 실제로 깨닫는 사실은 각 교회가 어떤 유형의 소그룹모델을 선택했든지 소그룹사역의 성패는 훈련으로 준비된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적어도 교회 내에서 소그룹리더로 세움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을 가진다는 점이다. 적어도 리더로 세워졌다면 그가 누구인든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와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 보다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세워진 리더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태도와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그룹사역 현장의 인적 구성을 들여다 보면 다양한 영성의 색깔과 신앙의 배경과 깊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소그룹 현장은 각기 눈높이가 다른 10인 10색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의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모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리더 한 사람의 자기훈련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실한 사랑으로 전인격적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멤버들을 돌보며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회가 백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영성과 인격과 지성을 비롯하여 사회 공공적 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소양을 갖춘 리더로 세워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교회의 전방위적인 리더훈련시스템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사역의 역동성을 통해 건강한 교회성장을 꾀한다면 반드시 교회 내에 소그룹리더들을 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책무는 두말할 것 없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소그룹리더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현장에서 긴 시간 실제적으로 훈련시스템을 세우고 그 속에서 리더들에게 전달했을 때 효과를 본 훈련 교과과정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 왜 소그룹사역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리더에게 교회론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둘째, 소그룹 자체에 대한 이해다.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어떤 위치에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와 소그룹에 참여하는 다양한 멤버들에게 유익하고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소그룹사역의 역동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셋째, 소그룹리더에 대한 이해다. 소그룹리더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소그룹리더는 사역을 하면서도 내내 방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소그룹리더들은 서로가 서로의 전인격을 알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소그룹 안에서 멤버들의 머리만 키우는 지식전달 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를 알고 그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소그룹구성원들을 섬긴다면 반드시 그 소그룹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다. 특히 구성원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균형 있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소그룹리더의 역할인 것을 깨달은 잘 준비된 소그룹리더가 있다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소그룹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인도방법(Skill)에 대한 이해다. 소그룹은 생명체다. 생명을 연명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성장하고 성숙할 때 기쁨이 있다. 다양한 신앙적 배경과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 시간을 즐거움이 넘치도록, 새로운 것을 함께 알고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만남 자체가 삶을 공유하고 서로 깊이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감동이 넘치도록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소그룹 모임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현장에서의 마침 이후에 그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소그룹리더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그룹을 진행해야 하는가는 그 기술이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효과가 있다.

소그룹은 생명을 가진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역동적이고 열매맺는 소그룹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리더의 그 훈련내용과 종류는 사실 무궁무진하다. 실례로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소그룹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고 말씀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곳이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쉽게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를 향해서 또 바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함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곳, 원활한 교제를 통해 쉽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곳, 작은 수가 모이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곳,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어떤 대화나 나눔이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 다른 그룹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곳,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곳, 소그룹의 확장을 통해 전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룹배가에 대한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한다.³² 이런 소그룹이 과연 순식간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긴 시간 소그룹사역을 연구하고 임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한 번의 세미나로 준비된 소그룹리더가 탄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는 소그룹 구성원들

³² 빌 도나휴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책 속에 전반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빌 도나휴,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 개정판』, 김주성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은 아주 쉽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고, 모이는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하려면 소그룹리더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소그룹만이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눈 앞에 있는 소그룹멤버들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모임의 중심에 있는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외에도 ‘왜 여기 모였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라는 소그룹목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 소외 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소그룹인도스킬(Skill), 각자의 삶의 폭 빠져 있다 가 영적 모임인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을 영적인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 모임 때 마다 말씀나눔과 교제와 기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자기들만의 천국으로 전략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봉사자로 영혼구원으로 열린 소그룹을 유지하는 방안, 모든 구성원들이 진짜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방안,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주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와 유기체적으로 연결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만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고백을 자극하는 열린 질문을 하는 방법, 인도자가 먼저 상처 받을 각오를 하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역동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고 또 경청하는 인도 방법, 성경공부교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작은 인원 수가 모인만큼 깊이있고 밀도있는 기도로 실제적인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방법 등등 소그룹인도자들이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주제들은 수 없이 많다. 이런 주제들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소그룹목회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4. 적절한 교재선택과 생명주기에 따른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진행하라.

2023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그룹 참여자들에게 교회가 교재와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9.5%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제공되는 교재와 유인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교회에서 만든 교재’가 56.6%였고, 담임목사님의 설교요약문이 46.2%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교재와 유인물의 체계적 교과과정 여부는 아주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56.5%가 ‘있다’는 응답률을 보였다.³³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소그룹사역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하다. 소그룹리더가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어려운 교재를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결국 소그룹리더들이 잘 소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소그룹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정기적인 모임에서 먼저 목회자가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교재의 질문이 단답만을 요구하는 폐쇄형 닫힌질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질문인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소그룹으로 모인 이유는 역동적인 나눔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답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소그룹에서 나눔이 일어날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열린질문으로 이루어진 교재를 선택하면 훨씬 소그룹모임 자체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직전에 언급한 소그룹그룹핑 과정에서 연령별로 소그룹을 구성하든지, 자신들의 삶의 특성이나 취향에 따라 소그룹을 구성하는 취향소그룹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별 소그룹 구성이든지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 내 소그룹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소그룹현장에서 다루는 교재가 재미도, 새로운 깨달음도, 적극적인 나눔을 통한 감동도 주기 어렵다면 분명히 그 소그룹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딴 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소

³³ 이상화 외 9인, Ibid., 214-215.

그룹교재가 참석한 모든 멤버들에게 효과적으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성숙시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지, 나아가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소그룹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교재의 내용구성에 대한 주의 깊은 준비와 함께 소그룹교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짧게는 3개월이나 6개월, 더 나아가서는 1년이나 2년의 교과과정(커리큘럼)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 66권의 흐름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제별 성경공부교재를 선택하든지, 소그룹 참여자들이 교회가 진행하는 소그룹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꾀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잘 짜여진 교과과정이다. 특별히 멤버들이 가진 관심사를 중심으로 짜여진 특성화(혹은 취향)소그룹 구성이라면 소그룹 멤버들의 관심사를 말씀의 진리로 해결할 수 있는 소그룹교과과정을 짜면 더욱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고3자녀들을 둔 학부모들로 멤버가 구성된 특성화 소그룹이라면 그 소그룹에는 1년 동안 어떻게 부모의 영적 권위를 잃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그룹교과과정을 짜면 효과적일 것이다. 교회 내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주된 멤버로 구성된 실버사랑방이라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소그룹교과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선교적 사명에 불타는 멤버들이 모인 소그룹이라면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소그룹 교과과정을 짜야 할 것이고, 운동하고 교제하는 취향 소그룹이 구성되었다면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과 흐름으로 구성된 소그룹교과과정을 짜면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소그룹 멤버들 자체가 영육간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멤버들의 관심사인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을 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소그룹의 특성에 따라 소그룹교재는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변용되어 짜여질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소그룹 멤버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그룹교재를 선택하고, 교과과정을 짜는 것은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 활성화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제이다.

3.5. 좀더 모이기 쉬운 소그룹으로 소그룹 재편성(Re-Grouping)을 진행하라.

교회가 전면적으로 소그룹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소그룹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처음 소그룹을 시작하는 교회라면 조금은 쉽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소그룹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곧 봉착한다. 그런데 기존에 소그룹을 운영한 교회라면 ‘기존 소그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재편할 것인가? 또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량할 것인가?’ 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회의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그룹핑(Grouping)을 하는 일이나, 소그룹을 재편성(Re-Grouping)하는 일은 교회 내적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난제를 극복하고 소그룹을 바람직하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간에 탈락하는 구성원 없이 지속성을 띠고 모여서 말씀나눔과 친밀한 교제와 깊이있는 기도와 상호섬김과 전도의 열매까지 맺는 소그룹 편성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온 소그룹편성 방식은 각 지역별로 효과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교회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한 교인관리에 방점을 찍은 편성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고, 자신과 함께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속에 있는 같은 연령대 구성원들이 있는 소그룹

에 편성된다면 훨씬 더 모이기 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8.4%의 응답자들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 또 연령별로도 5세~10세 정도의 연령차이를 가지면 훨씬 더 모이기 쉽다는 응답을 했다.

결국 교회의 인적구성 현황을 잘 파악하고먼저 성인 성도들의 ‘성비, 연령구성, 부부현황(자녀여부와 자녀교회출석상황), 싱글현황, 교회직분비율, 섬김현황, 주거지와 교회와의 거리 현황, 도보 및 교통편 이용현황 등’ 일반적인 인적구성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구구분 기준, 각 소그룹(성별구분-남성/여성 소그룹, 혼성 소그룹, 부부 소그룹, 싱글 소그룹 관심사 중심 소그룹, 연령별 소그룹, 특별소그룹 등)의 개수, (교회전체적으로) 성도의 소그룹 참석률(참석자와 비참석자 비율), (각 소그룹의) 소그룹 참석률, 휴면 소그룹 개수, 각 소그룹 주 모임시간, 모임장소 현황, 각 (교회전체적으로)평균 소그룹 재편성 기간, (성도 개별적으로) 현재 소그룹에 편성된 후 그 소그룹멤버로 활동한 기간,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사용한 교재 등’을 파악해야한다. 특히 각 교회들마다 나름의 여러 가지 상황과 독특한 환경 때문에 소그룹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교회 내에서 진행해온 소그룹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치로 데이터화하여 소그룹 (재)편성을 준비하는 토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³⁴

기초자료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지면 목회자들이나 소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사역자의 눈에 자연스럽게 소그룹편성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느끼게 된다. 실례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구이동이 되지않아서 긴 이동시간을 가지면서 소그룹에 참여한다든지, 긴 시간 한 소그룹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친밀감은 있지만 생경함과 새로움은 사라져 버린 소그룹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리된 데이터를 보고 소그룹(재)편성의 필요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안의 교회(Church in Church)인 소그룹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한 몸이 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성도들과의 유대가 없이 혼자 은혜의 소외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 근본원인 소그룹 편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조직적으로는 소그룹에 편성되어 소그룹 구성원이지만 휴면소그룹에 소속되어 소그룹의 유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성도가 교회 내에서 최소한 30%이상이라면 소그룹의 재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소그룹리더로 섬기는 이들에게 섬기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참여율이 50%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재)편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소그룹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편성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 그룹핑과 관련해서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을 운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실은 잠재적인 소그룹리더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그룹 (재)편성과정에서 새로운 소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임명되어 조직적인 차원

³⁴ 참고로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적 공동체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소그룹참여자들이 적절한 소그룹 진행시간으로 인식하는 평균시간 분량은 1시간 20분(80분)으로 파악되었다. 또 사회학적으로 소그룹의 인원수는 12명 이하이지만 적절한 소그룹 인원수는 7명이라는 응답을 얻었다. 여기에 더하여 소그룹 내에서 멤버들이 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적어도 평균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소그룹이 평균 1년 8개월 정도 지속하다가 재편성되면 좋겠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상화 외 9인, Ibid., 206-208. 참조.

에서 소그룹 (재)편성이 완결되었다고 해서 이제 소그룹사역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계속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역자와 함께 소통하며 작은 목자로서 섬김의 각오가 되어있는 새로운 리더가 미리 선별되고 훈련받는 과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룹핑의 참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리더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심방하며 소그룹 활동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따스한 격려와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그룹이 새롭게 편성되면 새로운 소그룹을 섬길 리더의 필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리더들을 선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기존의 리더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새로운 리더들을 설득하고 세우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소그룹의 성패는 결국 리더에게 달려있으므로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의 리더들로 적당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소그룹(재)편성 이후에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질만한 성도들이다.³⁵

첫째, 진정성의 여부다. 소그룹리더는 적어도 진솔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중성이 있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리더의 속도가 팀의 속도”라는 말이 있듯이 리더의 진정성은 그룹의 진정성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다.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지만 진정성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이끌기에 충분한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리더십이 탁월해도 자신이 이끄는 그룹에 참여할 여유가 없거나 리더모임과 교육에 적어도 참여할 시간이 지속적으로 참여가 불가능 하다면 리더로 세워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리더로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셋째, 활동성이 있어야 한다. 사역을 해 보면 평소에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성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바쁜 사람을 더 바쁘게 하라!’는 격언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쁨 속에서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나 시스템을 훨씬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없이 서두르는 사람은 피하되, 소매를 걷어붙이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배우려는 의지가 엿보여야 한다. 성도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기꺼이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리더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계지향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려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소그룹리더감이다. 이것은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성적인 성향을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참여시키는데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소그룹리더감으로

³⁵ 하기한 내용은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목회 컨설팅』 제1부 5장 “리더를 훈련하라” 부분을 보면 훨씬 더 심도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길 수 있다.

결국 소그룹 그룹핑과 잠재적 리더발굴이 병행될 때 역동적인 소그룹모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의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V. 맺는말

코로나팬데믹 이후 교회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우려할만한 현실이 목회 현장에 계속해서 불쑥불쑥 출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감의 증대와 위험사회와 불안 증폭의 사회는 교회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을 열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 줄 수 있는 상호신뢰가 있는 소그룹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성경적 기초를 가진 역동적인 소그룹사역'이 있는 교회에는 '건강한 성도들이 계속 세워지는 성숙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만 30년 이상 소그룹모회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목회현장에서 씨름을 해 본 결과 건강한 소그룹사역은 균형있고 건강한 교회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님의 몸인 생명적 유기체인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할 절대성을 가진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진행되는 역동적인 소그룹모회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새로운 부흥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국문서적

- 권문상. *어제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 _____. *소그룹의 원리와 실제*. 서울: CLC, 2024.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Vol.5*.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_____.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이상화 외 9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지용근 외 9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9.
- _____. *건강한 소그룹목회 컨설팅*.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 *코로나 빅뱅-뒤바뀐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20.

번역서적

- Alain de Botton.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박중서 역. 서울: 청미래, 2011.
-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월로워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개정판),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Gareth W. Icenogle. 소그룹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서울: Ivp, 2007.
- Robert Waldinger · Marc Schulz.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박선령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3.

온라인 신문

- 최선아.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리서치*, 2025년 5월 20일.
https://hrcopinon.co.kr/archives/29126?utm_source=chatgpt.com
- 뉴시스. “나혼자 사는 60대 이상, 20·30대 앞질렀다…56% 年 3000만원 못 벌어” *공감언론 뉴시스*, 2025년 5월 22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200?utm_source=chatgpt.com
- 서윤경 최기영 유경진. “4명 중 1명 ‘중증의 고독’ … 종교인이 외로움 덜 탔다” *국민일보*, 2025년 5월 22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154&code=23111111&cp=nv>

<필자약력>

이상화(서현교회 담임목사,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

총신대학교(B.A., M.Div., Th.M., Ph.D. 과정수료)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Ph.D.)에서 공부했습니다. 2007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설립된 소그룹목회학학위과정(M.A. Th.M.)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설립과정부터 참여하여 긴 시간 교수로 섬겼고,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사)교회갱신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교회연합현장을 경험했고, 드림의교회 개척목회를 7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아름다운 사역의 전승이 있는 서현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월간 크리스챤리티투데이 한국판> 초대 편집인을 역임했고 FEBC극동방송 <교계 전망대> 진행자로 다년간 방송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94년부터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를 모토로 설립된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로 소그룹 목회사역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역을 꾸준히 해오면서 소그룹목회와 사역관련 저서와 신학 및 목회도서들을 출간했습니다.

<저서>

소그룹목회와 사역관련 저서로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리더십」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스브레이크 모음집」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간된 책들 외에 연구원에서는 교회 소그룹사역현장에서현장목회자들이 매 주일 만 10년이상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짜서 소그룹 인도자들이 역동적으로 소그룹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열린질문’으로 집필된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시리즈>가 있습니다. (www.smallgroup.co.kr에서 참조) 이외에도 「한 권으로 배우는 기독교교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교회 성숙 분석 리포트」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매력포인트24」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대표기도, 이렇게 준비하라」 「2028 한국교회 출구전략」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노트」 「다시 십자가 앞에」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묵상과 주중 가정예배, 그리고 매주 역동적인 소그룹진행이 가능한 성경공부 교재가 포함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인 「썬QT」를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교회트렌드2024」의 ‘처치 인 처치 (Church in Church)’ 영역 및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친교영역’의 집필자이기도 합니다.